

독일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갑옷에 관한 기초연구

조 우 현 · 염 정 하⁺ · Beckers-Kim 영 자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 · 인하대학교 고조선연구소 연구교수⁺ ·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선교박물관 큐레이터

A Fundamental Study of the Armors of the Missionsmuseum St. Ottilien in Germany

Woo Hyun Cho · Jung Ha Yum⁺ · Young Ja Beckers-Kim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Ancient Chosun Studies, Inha University⁺
Curator of Missionsmuseum St. Ottilien
(received date: 2014. 12. 26, accepted date: 2015. 4. 16)

ABSTRACT

This is a basic study of the two remaining armors (artifacts number K2366, K2368)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that is part of the *Korean* costume collection, which is preserved in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in Germany. The armor No. 1 (artifacts number K2366) is a coat-styled armor with brass studs. It has a U-shaped neckline with the non-overlapping collars and sleeve straight-lined inseam. The armor No. 1 has the *Mu* to the sides and is not back slit. Both its inner and outer material are padded with cotton. Leather mails are attached on the inner lining, and studs are attached on the outer lining to match the leather mails. For this reason, the armor No. 1 can be named *MyeonPiGab* (brass studded armor consisting of a cotton coat with internal leather mails). The outer material is faded to have the natural white, or antique white look and the patterns on it are indigo blue. The inner material is blue, but the original color is unknown since it is faded. The lotus blossoms and vine patterns are dyed on the surface of the outer material and a name is written on the inner material. The armor No. 1 was worn between the late 17th century and the 19th century. It is estimated that it was worn by military officers who were above the mid-rank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 armor No. 2 (artifacts number K2368) is a coat-styled armor with brass studs and a low-cut U-shaped neckline. The armor No. 2 has a slit on the left armpit and a string around it. Studs are evenly attached on the armor. The iron mails are attached to the left chest area on its inner lining. It seems that it was designed with both formality and functionality in mind. The outer material is red flannel, the inner material is blue satin and the pads are cheesecloth. The side of its collars, cuffs, front lines, sidelines, back slit, and bottom lines are trimmed with fur. There are armors called "*JeonCheolGap* (brass studded armor consisting of a felt coat with internal iron mails)," which is similar to the armor No. 2, however, the similarities are limited because they are not made of the same material nor do they follow the same principle of nomenclature.

Key words: armor(갑옷), *MyeonPiGab*(면피갑), *JeonChcholGap*(전철갑), military costume(군사복식)

I. 서론

복식 관련 유물의 대다수는 국내에 소장되어 있지만, 일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외국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복식 관련 유물 등을 포함하여 1990년대 이후로 국립문화재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하여 지속적인 조사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주로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의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었으며(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n.d.), 아직 그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복식 문화재 중 국내에도 한정적으로 소장된 갑옷 유물의 경우 해외 소장 수량은 상당한 편이다(Park, 2008). 그동안 조선 후기 갑옷 유물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으나(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Kim, 1996; Kim, 1998; Kim, 2009; Lee, 1979; Lee, 1980a; Lee, 1980b; Lee, 1983;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MCI], 1987; Moon, 2004; Park & Lee, 2009; Park & Song, 2013; Park, 2003; Park, 2005; Park, 2008; Yoo, 2006; Yum & Cho, 2013; Yum, 2014), 국외소재 갑옷 유물의 경우, 그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간단한 정보만 있을 뿐 각 갑옷 유물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어려운 편이었다.

갑옷은 전쟁을 대비하는 동시에 당시의 국방력을 드러내는 복식으로 주로 군사들이 착용하였으며, 그 시대의 첨단 재료와 기술력, 기능성 등이 응집된 중요한 복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소재 한국 갑옷의 경우 조선 시대의 것인지에 대한 시대 감정이 불분명하거나 한국의 것으로 추정되나 다른 나라의 것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Park, 2008). 독일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선교박물관에 소장된 조선 시대 갑옷 1점의 경우도 일본 갑옷으로 오인되어 일본의 사무라이 투구 등과 같이 전시되기도 하였다(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9).

본 연구에서는 독일 상트 오티리엔(Saint Ottilien)

선교분도수도원 선교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의 복식 유물 중 조선 후기 양식 갑옷 2점(유물번호 K2366, K2368)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 갑옷 2점에 대한 기초 유물조사를 하며, 더 나아가 조선 후기 갑옷에 관한 문헌 자료, 조선 시대 회화자료 및 기존의 갑옷 유물자료(전래유물)인 실증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갑옷 2점에 대하여 시대 구분과 복식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갑옷 유물 조사는 총 2차례로, 1차는 2012년 10월 29일~11월 3일까지 독일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선교박물관에서 전반적인 한국 복식 유물의 기초조사 기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2차는 2014년 7월 24일 한국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갑옷 1점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조사한 갑옷 유물의 형태, 재료, 색상, 문양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문헌과 기존 갑옷 유물과의 비교를 통하여 본 조선 후기 갑옷 유물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었던 해외 소장 갑옷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방치되어 있던 해외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한다. 또한 조선 후기 갑옷의 기초자료로서 복식사와 군사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II. 상트 오티리엔 소개 및 한국 유물의 소장 현황

1864년 암라인(A. Amrhein, 1844-1927) 신부가 설립한 독일 분도선교수도원은 1886년 남부독일, 현재 뮌헨에서 40Km 정도 서쪽에 에레징(Eresing)이란 작은 시골의 소영주의 대지를 구입하고 이주하여, 현재 위치에 자리하였다. 당시의 작은 궁 건물은 현재 수도원의 입구가 되고, 이 부지 안에 오티리엔 성녀를 주제로 모신 성당이 있어, 선교분도회는 현재 이 성녀의 이름을 따서 선교분도회 상트 오티리엔으

로 알려졌다. 19세기 유럽의 강대국들은 앞 다투어 미개발지에 식민지를 확보하고, 점령한 식민지에서 천주교 선교사업을 장려하였으며,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상트 오티리엔에서는 현재의 작은 마을로 옮기기 전부터 이미 동아프리카 선교사업을 시작했었으나, 동아프리카 원주민의 반발과 20세기 초 영국의 점령으로 인해 동아프리카에서의 선교사업을 정리하며, 동양으로 눈을 돌려 새로운 선교지역을 모색하였다. 1909년 2월 초 수도원에서 신부 2명, 수사 1명 총 세 명을 한국으로 파견하면서 한국에서의 선교사업이 시작되었다. 선교사업이 결정된 이후 노르베르트 웨버(Norbert Weber) 원장신부는 1911년 2월부터 약 4개월, 1925년 6월-?에 방문하여 한국의 생활문화 등을 촬영하는 한편, 유물 수집을 하였으며, 1915년 한국방문기인 『Im Lande der Morgenstille』, 1926년 『In den Diamantbergbau Koreas』을 출간하였다(Norbert, 2012; Norbert, 1999; Beckers-Kim, 2013).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 내 선교 박물관은 전 세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수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한국의 100여 년 전 문화재도 다수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때 검재 정선의 그림이 있었다고 한다. 총원장 예레미아스(Jeremias) 신부가 2005년 김영자(Beckers-Kim) 박사에게 한국관의 정리를 제안했고, 김영자 박사는 한국의 국립민속박물관에 알리면서 2007년 11월 20일~12월 10일까지 학예사 4명을 현지로 파견하여 김영자 박사의 5명이 전시된 유물을 정리하였다. 정리한 유물은 559건 626점이다. 그 후 발견된 각종 유물을 합한 801점에 대하여 현재 소장번호를 부여하였다. 아직도 소장번호가 없는 유물을 포함하여 모두 900점으로 추산되고 있다(Beckers-Kim, 2013). 그리고 2012년 10월 29일~11월 3일까지 한국 복식 유물만을 대상으로 기초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복식 관련 유물은 총 277점 외에 미조사분 소량이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eckers-Kim, Cho, & Lee, 2012).

Ⅲ. 갑옷의 구조와 특징

독일 뮌헨의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선교

박물관에 소장된 후기 양식으로 의(衣)에 두정(頭釘)을 박아 갑찰을 고정하는 형식인 두정갑(頭釘甲)형이다. 각 갑옷 유물의 구조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갑옷 1(유물 번호 K2366)

1) 형태

갑옷 1(유물 번호 K2366, 이하 갑옷 1)의 걸감은 <Fig. 1>, 안감 앞면은 <Fig. 2>와 같다. 본 갑옷은 <Fig. 2>에 보이듯이 뒤집힌 채로 오랫동안 보관 및 전시되어 있었다. 형태는 포(袍)형에 두정이 박혀있으며, 『Yungwonpilbi [용원필비(戎垣必備)]』(1813)의 보군 피갑 <Fig. 3>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목 부분은 U자형, 깃은 맞깃이며, 소매는 직배래 형이다. 앞길과 뒷길은 골로 연결되어 있고, 소매는 몸판에 봉제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어깨 부위에 견철이 고정되어 있다. 갑옷 1은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갑옷 <Fig. 4>, 중앙국립박물관 소장 갑옷(소장품 번호: 증(贈)-003570-000) <Fig. 5>와 유사하게 뒤트임이 없고 양옆에 무가 달리면서 옆부분이 트여있는 형태이다(MCI, 1987;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n.d.). 17세기 정충신(鄭忠信, 1576~1636) 장군의 갑옷과 조필달(趙必達, 1600~1664) 장군의 갑옷의 경우 뒤트임이 있고, 양옆에 무가 달렸으며, 옆트임이 없는 형태가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2006; MCI, 1987). 18-19세기 갑옷은 주로 뒤트임이 있고, 양옆에 무는 없으며 옆트임이 있는 형태가 대부분이다(CHA, 2006; Kim, 1998; MCI, 1987). 갑옷의 무의 존재와 옆트임 여부로 보아 본 갑옷의 형태는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중간 형태로 생각된다.

총 길이 101cm, 어깨 전장 99cm, 고대 15cm, 수구 37cm이다. 무의 치수는 세로 약 43-44cm, 가로 7.5cm이다.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갑옷은 총 길이 104cm, 어깨 전장(화장 52cm) 약 104cm, 수구 36cm이며 <Fig. 4>, 중앙국립박물관 소장 갑옷은 총 길이 105.5cm, 너비(어깨 전장) 96.8cm <Fig. 5>로 갑옷 1과 전체적인 형태가 유사하며, 전체 치수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옷 1의 안감에는 갑찰이 총 194개로 안감의 앞면 94개, 뒷면 100개가 두정으로 고정되어 있다. 상박부용 갑찰은 가로 3cm, 세로 8.5cm로 2줄로 고정되어 있으며, 앞면 20개, 뒷면 24개가 있다. 몸판용 갑찰은 평균 가로 6cm, 세로 9cm이며, 기타 사각형을 변형한 모양이 있다. 몸판 앞면의 갑찰은 9줄로 총 84개의 갑찰이 있으며, 몸판 뒷면의 갑찰은 8줄로 76개가 있다. 몸판 앞면에 고정된 갑찰의 형태 및 배열은 <Fig. 6>과 같다.

2) 재료와 색상

의(衣)의 소재는 겉감과 안감 모두 면(綿)이며, 겉감과 안감 사이에 면 심지가 대어져 있다. 겉감의 경사밀도는 15.5올/cm 위사밀도는 12.5올/이다. <Fig. 7>, <Fig. 8> 안감의 경사밀도는 14.5올/cm 안감의 위사밀도는 14올/cm이다. <Fig. 9>, <Fig. 10> 면 심지는 겉감과 안감과 비교하면 성근 편이다. 갑찰의 재료는 가죽 3겹을 겹쳐 만든 피찰(皮札)이다. <Fig. 11> 『Hungug-salye-chwalyo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1652) 기록에 따르면 군병의 피갑 1개의 견본을 만들 때 갑찰 재료로 '생우피(生牛皮) 2령'을 사용하였다. 조선 후기 갑옷에 사용된 피찰은 주로 소가죽 또는 돼지가죽이 사용되었으며, 현존하는 피찰

재료는 주로 소가죽으로 3겹을 겹쳐 갑찰을 만들어 사용하였다(Kim, 1998). 갑옷 1도 소가죽으로 피찰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Park(2003)에 의하면 "조선 후기의 갑옷을 기준으로 의(衣)의 재료와 갑찰(甲札)의 재료가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 '의-갑찰(衣-甲札)'의 명명 원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pp. 173-176). 이 원칙에 적용하면 갑옷 1은 면피갑(綿皮甲)으로 명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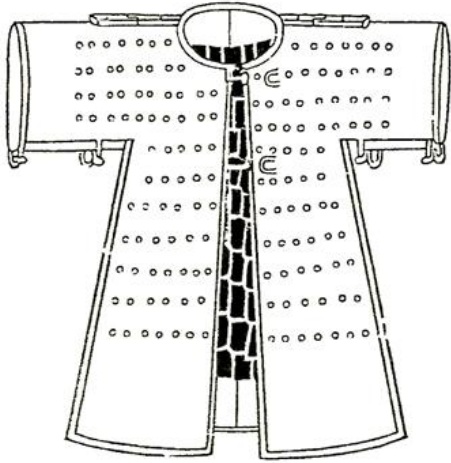
겉감은 전체적으로 빛바랜 소색(素色) 계열이며, 문양 색상은 남색계열이다. 안감은 청색으로 보인다. 조선 후기 갑옷은 안감을 청색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며(Kim, 1998), 본 유물과 유사한 국립중앙박물관소장 갑옷인 <Fig. 5>에서도 청색 안감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옷 1이 뒤집어져서 보관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고, <Fig. 1>을 통해 갑옷 1 겉감의 등 쪽 중앙 부분 색상과 안감 전체 색상을 비교하면 두 부분 모두 추후 청색 계열 안료로 염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갑옷 1의 안감의 본래 색상이 청색이었는지 혹은 다른 색이었는지 확정하기는 어렵다. 피찰은 흑색으로 칠해져 있다. 두정으로 고정된 몇몇 피찰의 경우 가장자리를 둘러 두정을 박을 수 있는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 근처에 녹슨 흔적이 보이므로 <Fig. 11> 이는 기존에 다른 피갑에 사용하던 피찰을 다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 Outer detail of the Armor 1(K2366),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2> Inner detail of the Armor 1(K2366),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3> Brass studded armor with internal leather plates, [피갑(皮甲)]
(Yungwonpilbi, 1813)



<Fig. 4> Armor from Yonsei University Museum,
(MCI, 1987, p. 210.)



<Fig. 5> Armor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n.d.)



<Fig. 6> Armor 1(K2366),
(Illustration by researcher)

3) 문양

의(衣)의 겉감에는 연화만초문양이 염색되어 있다. <Fig. 12> 측면형의 연꽃은 화판의 끝을 뾰족하게 묘사하여 최소한의 연화 특징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연꽃 주위에는 C자형 만초의 덩굴이 강한 곡선으로 둥글게 말아 감겨 있다. 그리고 만초 덩굴 사이에 연잎을 두 종류로 하여 동일한 두 연꽃의 방향을 달리

하여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연꽃이 넝쿨에 의해 계속 연결된 층진형 배열이다. 연꽃의 크기는 가로 약 7.5cm, 세로 약 8cm이며, 문양의 1회 반복 단위는 가로 약 14cm, 세로 약 16cm이다. 갑옷 1에 나타난 연화만초문양의 형태, 구성방법, 문양의 크기로 볼 때, Cho(2008)의 기준에 따르면 17~18세기 중기의 연화만초문양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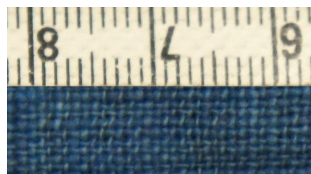
〈Fig. 7〉 Armor 1(K2366),
Outer layer, end per inch,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8〉 Armor 1(K2366),
Outer layer, pick per inch,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9〉 Armor 1(K2366),
Lining, end per inch,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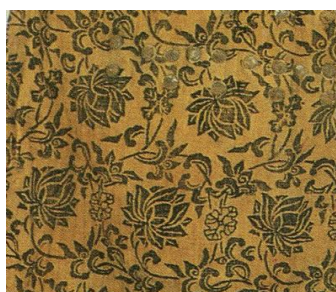
〈Fig. 10〉 Armor 1(K2366),
Lining, pick per inch,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11〉 Armor 1(K2366),
Internal leather plates,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12〉 Armor 1(K2366),
Details of lotos blossom and
vine pattern,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13〉 Armor from Yonsei
University Museum, Details of lotos
blossom and vine pattern,
(MCI, 1987, p. 210.)



〈Fig. 14〉 Armor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Details of lotos blossom and
vine pattern,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n.d.)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갑옷의 연화만초문양인 〈Fig. 13〉과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옷의 연화만초문양인 〈Fig. 14〉, 동경보물유품관 소장 갑옷의 〈Fig. 16〉 연화만초문양인 〈Fig. 15〉는 갑옷 1에 나타난 연화만초문양의 형태와 구성방법이 유사함을 볼 수 있다. 각 갑옷의 전체 치수 대비 문양의 배열 형태와 반복 단위를 확인해 보면, 갑옷 1은 총 길이 101cm에 문양의 1회 반복 단위가 약 9회 반복,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갑옷은 총 길이 104cm에 문양의 1회 반복 단위가 약 9회 반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옷은 총 길이 105.5cm, 에 문양의 1회 반복 단위가 약 9회 반복, 동경보물유품관 소장 갑옷은 약 103cm(3尺 4寸)에(MCI, 1987) 문양의 1회 반복 단위가 약 9회 반복되어 있다. 이로 보아 갑옷 1에 나타난 연화만초문양의 반복 단위와 크기는 위에 언급한 갑옷들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옷 1의 문양은 조선 후기 단갑(緞甲)이나 단철갑(緞鐵甲)과 같이 직조된 것이(CHA, 2006; MCI, 1987) 아니라, 염색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면피갑인 <Fig. 17>이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에는 인염(印染) 기법으로 앞길 아래쪽 좌우와 뒷길 양쪽 어깨에 문자문양, 뒷길 아래쪽 좌우에는 복숭아나 석류로 추정되는 과일 열매 문양이 찍혀있다. 또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면갑에도 문자문양과 과일 열매 문양이 찍혀있어 인염 기법을 확인할 수 있다.(Park & Song, 2013) 갑옷 1과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갑옷 <Fig. 4>, 중앙국립박물관 소장 갑옷 <Fig. 5>의 문양은 위에서 언급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목면피갑 <Fig. 17>이나 면갑과 같이 인염 기법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걸감에 전체적으로 일정한 패턴으로 보상화문양이 연속적으로 염색 되어있어 인염 기법으로 확정하기 보다는 넓은 부위에 연속문양을 지속적으로 염색하기 적합한 조선 후기 문양 염색 기법 중 하나인 형지염의(Min, 2000)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갑옷 1의 문양 염색 기법은 인염 혹은 형지염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연구가 필요하다. 몸판과 무 부분의 당초문의 패턴이 틀어지고 염색의 색상 농도가 다른 점을 <Fig. 1> 감안하면 갑옷의 걸감용으로 문양을 염색한 직물을 따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4) 묵서(墨書)

<Fig.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갑옷 1의 뒷길 안감 왼쪽 상박부 갑찰 2줄이 끝나는 부근에 세로로 '李玄瑞(이현서)'로 보이는 세 글자가 먹물로 쓰여 있다. <Fig. 19> 국립 중앙박물관 소장 갑옷인 <Fig. 5>의 안감 뒷면에는 '金致衡(김치형)'으로 추정되는 글씨가 남아 있고 미늘 한 조각에는 '權命賢(권명현)'과 '朴宗後(박종후)'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갑옷을 입었거나 만든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한다(NMK, n.d.).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Park & Song (2013)에 의하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면갑 안쪽에 세로로 '孔君玉(공군옥)',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소장 면갑에는 안쪽에 '金○○', '崔仁祿(최인록)'의 세 글자가 쓰여 있으며, 이는 착용자의 이름을 갑옷의 안쪽에 적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한다(p. 165). 즉 갑옷 1의 묵서는 착용자 이름을 갑옷의 안쪽에 적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갑옷 1에 묵서로 쓰인 '李玄瑞'는 1806년(순조 6) 생으로 1829년(순조 29)에 정시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1835년(헌종 1)에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에 따르면, 1841년(헌종 7)에도 선전관이었으며, 1842년(헌종 8)에는 도총도사



<Fig. 15> The Armor from the Yusyukan War Memorial Museum in Japan, Details of Lotos blossom and vine pattern, (MCI, 1987, p. 168.)



<Fig. 16> The Armor from the Yusyukan War Memorial Museum in Japan, (MCI, 1987, p. 168.)



<Fig. 17> Armor from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MCI, 1987, p. 212)



<Fig. 18> Armor 1(K2366), The positions of characters,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Fig. 19> Armor 1(K2366), Characters,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2. 10. 30.)

(都摠都事), 1846년(헌종 12)에는 오위장(五衛將), 1853년(철종 4)에는 용천부사(龍川府使), 1854년(철종 5)에는 우림위장(羽林衛將), 1870년(고종 7)에는 금위영의 천총(千摠), 1873년(고종 10)에는 내금장(內禁將), 1877년(고종 14)에는 훈련도감의 별장(別將), 1879년(고종 16) 2월 이전에는 어영청 별장, 6월 이후에는 총융청 중군(中軍), 1880년(고종 17)에는 금위영 중군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¹⁾

1)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41). 2397, King Heonjong, December 25th. “선진관 이현서(李玄瑞爲宣傳官)……”: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42). 2400, King Heonjong, March 4. “……도총도사 이현서(李玄瑞爲都摠都事)……”: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46). 2455, King Heonjong, September 15. “……오위장 이현서(李玄瑞……爲五衛將)……”: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53). 2540, King Cheoljong, March 26. “……용천부사 이현서(李玄瑞爲龍川府使)……”: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54). 2553, King Cheoljong, April 17. “……우림위장 이현서(羽林衛將李玄瑞)……”: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갑옷 1과 형태, 크기, 소재, 문양 등 여러 면에서 유사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옷인 <Fig. 5>에 적혀진 ‘金致衡’은 『*Ilseongnok* [일성록(日省錄)]』(1779)에 기록되어있다. 그리고 『*Seogwol-yeong-geon-dogameui-gwe*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1832)의 ‘金致衡’은 훈련도감의 별무사(別武士)이며, 『*Chang-*

(1870). 2751, King Gojong, May 2. “……천총 이현서(千摠李玄瑞)……”: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73). 2787, King Gojong, April 18. “……내금장 이현서(李玄瑞……爲內禁將)……”: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77). 2835, King Gojong, February 6. “……훈련도감에서 말하기를 본국 별장 이현서(以訓鍊都監言啓曰, 本局別將李玄瑞)……”: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79). 2859, King Gojong, February 12th. “……어영청에서 말하기를 본청 별장 이현서(御營廳言啓曰, 本廳別將李玄瑞)……”: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79). 2864, King Gojong, June 28. “……총융청 중군 이현서(以李玄瑞, 爲摠戎中軍)……”: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1880). 2874, King Gojong, April 13. “……금위영 중군 이현서(以李玄瑞爲禁衛中軍)……”

gyeonggung-yeong-geon-dogam-euigwe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1834)에도 별무사(別武士)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Jinchaneuigwe* [진찬의궤(進饌儀軌)]』(1848)의 金致衡은 지구관(知穀官)으로 기록되어 있다.²⁾ 『고법전강독(古法典講讀)]』에 의하면 훈련도감의 별무사(別武士)는 “마병(馬兵) 중에서 뽑히어 윗자리의 벼슬을 받게 된 병졸”이라고 한다(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n.d.). 『*Man-giyolam* [만기요람(萬機要覽)]』(1808) 기록에 따르면, 훈련도감의 별무사와 마병에게 철갑(鐵甲)을 보급하였으므로, <Fig. 5>와 같은 갑옷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관은 조선 후기의 훈련도감 등에 소속된 군관직으로(Jigugwan [지구관], n.d.), 별무사보다 높은 지위로 중·하위급 장교에 해당한다.

조선 후기 대장과 그 이하 장관과 장교가 착용한 갑옷 겉감에 나타난 문양은 운문(雲紋), 보문(寶紋), 화문(花紋) 등으로 당시 유행했던 문양이었으나, 이는 대부분 단(緞)소재에 문양을 직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Yum, 2014). Yum(2014)에 의하면 “17세기 이후 기록과 유물로 확인된 융복에 적용된 당상관과 당하관의 문양에 대한 기준이 군복에는 18세기 후반-19세기에 되어서야 적용되었다”고 한다(pp. 96-97).

갑옷도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본다면, 갑옷 1의 경우 소재로 보면 보군용 면피갑이 적절하지만, 연화만초문양이 염색되어 있는 것을 보아 일반 보군보다는 높은 신분이 착용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여기에 위의 두 인물의 공통점으로 갑옷 1의 착용계급을 추정하자면 다음과 같다. 李玄瑞의 경우 선전관에서부터 중앙군영인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총융청의 당상관급 장관에 오른 인물이며, 金致衡은 별무사에서 지구관으로 오른 인물로 이들은 19세기 중앙 군영의 요직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를 바

탕으로 갑옷 1과 중앙박물관 소장 갑옷과 같은 문양이 있는 면피갑은 19세기에는 중앙군영의 중급 이상의 장관 혹은 장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갑옷 2(유물 번호 K2368)

1) 형태

갑옷 2(유물 번호 K2368, 이하 갑옷 2)의 형태는 <Fig. 20>와 같다(Seoul Museum of History, 2014). 포(袍)형에 두정이 박혀있으며, 목 부분은 각진 U자형으로 깊은 편이다. 깃은 맞깃 형태이며, 깃 끝 부분이 맞는 부분에는 금동으로 만든 지름 약 1cm의 동그란 방울 모양의 단추를 1개를 달아 여밀 수 있도록 하였다. 소매는 직배래 형이다. 일반적인 조선 후기의 갑옷과 유사하게 뒤트임과 옆트임이 있는 형태이다. 양어깨 부분에 어깨 견철을 고정했던 실밥 흔적만 있으며, 실제 견철은 소실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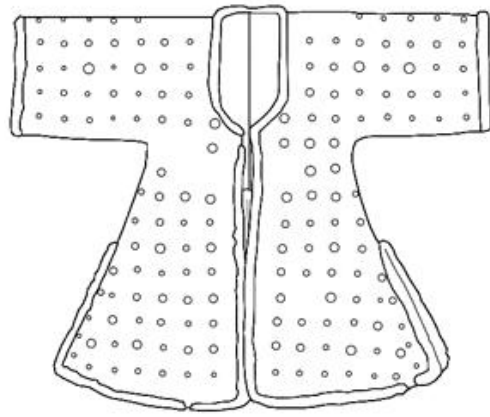
치수는 총 길이 111cm, 화장 67cm, 고대 19cm, 화장 66cm, 뒤폭 56cm, 수구 33.5cm이다. 옆선의 길이는 69cm이며, 옆트임은 40cm, 뒤트임은 59cm이다. 겉감 왼쪽 겨드랑이 부분에 4.5cm가량의 트임이 있으며, 트임에서 4cm 위 부근에(뒷길 쪽) 약 13cm의 천으로 만든 끈이 고정되어 있다. 이는 무기류를 고정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겉감 아래 앞 도련 평균 53.5cm, 뒤 도련 평균 54cm로 밀로 내려올수록 직선이 아니라 갈수록 옆으로 퍼지는 형태이다. 안감 양옆에는 무가 달려있으며, 무의 치수는 가로 약 20.5cm이다.

두정은 좌우 대칭의 균형을 맞추어 고정되어 있다. <Fig. 21> 소매에는 좌·우의 앞·뒤 모두 5행 4열로 두정이 박혀있다. 앞길과 뒷길에는 일부 두정이 소실되었지만, 구멍이 남아있어, 두정의 원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앞길은 좌·우 대칭되게 중앙에서 몸관 쪽으로 보면 1행에는 11열 2행과 3행은 14열 4행은 8열, 5행은 5열, 6행과 7행은 3열로 두정이 달린 형태이다. 뒷길 중심선에 두정 7개가 박혀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되게 1행에서 3행까지 14열, 4행은 8열, 5행은 5열, 6행과 7행은 3열로 두정이 달린 형태이다. 주로 쓰인 두정의 지름은 2.5cm, 1.7cm,

2) *Chang-gyeonggung-yeong-geon-dogam-euigwe*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 (1834). King Sunjo. “……별무사 김치형(別武士金致衡)……”; *Jinchaneuigwe* [진찬의궤(進饌儀軌)] (1848). 2. King Heonjong, March 22. “……지구관 김치형(知穀官金致衡)……”; *Seogwol-yeong-geon-dogam-euigwe* [서월영건도감의궤(西關營建都監儀軌)] (1832). 1. King Sunjo. “……훈련도감 별무사 김치형(金致衡訓練都監別武士)……”;



〈Fig. 20〉 Armor 2(K2368),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Seoul Museum of History, 2014, p. 117)



〈Fig. 21〉 Armor 2(K2368),
(Illustration by researcher)

1.3cm로 세 가지 크기이며, 각각의 두정이 산발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이지만, 크기별로 일정한 패턴으로 좌우 대칭되게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뒷깃 중심선에서 고대와 뒤트임의 중간 사이에 지름 8cm의 큰 두정이 박혀있어 〈Fig. 22〉 장식 효과를 주고 있다. 갑옷 2의 두정은 몸판과 소매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Gugpolyeiseolye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1474)의 두정갑(頭釘甲)인 〈Fig. 23〉와 유사한 두정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갑옷 2와 유사한 형태의 조선 후기의 전철갑(靛鐵甲) 또는 전갑(靛甲) 유물을 살펴보면, 18세기의 것인 다대진침철제영의 갑옷의 두정 패턴은 소매와 몸판에만 균일하고 아랫단 쪽으로 갈수록 생략되거나 〈Fig. 25〉, 혹은 아랫단 쪽으로 갈수록 두정이 박힌 간격이 멀어지는 경우, 또는 호랑이나 용무늬의 장식판이 달린 것 〈Fig. 26〉 등이 주를 이룬다(Kim, 1998; Busan Museum [BM], 2012; NRICH, 2013). 즉, 갑옷 2의 두정 패턴이 기존의 유물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갑옷 2의 특이점은 왼쪽 가슴 부분에만 철갑찰(鐵甲札)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Fig. 24〉 18세기 갑옷 유물인 다대진침철제영의 갑옷 〈Fig. 25〉는 몸판과 등판에 철갑찰이 있는 가능성을 고려한 형식이다. 이후 조선 말기로 갈수록 독일 라이프치히 그라시민속박물관 소장 갑옷 〈Fig. 26〉과 같이 갑찰

없이 의(衣)에 두정만 고정하는 의례성이 높은 형식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갑옷 2는 왼쪽 가슴 부분 즉 심장 부위에 두정으로 철갑찰을 고정하여, 의례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체의 일정 부분에만 존재하는 철갑찰로 볼 때, 시기는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2) 재료와 색상

겉감은 홍색의 융(絨) 종류로 보이며 〈Fig. 27〉, 안감은 청색계열의 단(緞) 〈Fig. 29〉, 심지는 성근 목면 〈Fig. 30〉을 2겹 이상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깃, 수구, 앞 솔기, 옆 솔기, 뒤트임, 밑단에 모피를 들렀다. 〈Fig. 20〉

재물대 고정식 고배울 영상 현미경 Mi-9000으로 촬영한 겉감의 직물 조직은 거친 평직으로 제직된 위에 파일을 심어 잔털이 일어나는 모습으로 보인다. 〈Fig. 28〉 이는 동래관왕묘 전래 동래영의 청색 갑옷 〈Fig. 31〉의 겉면 조직과 유사하며, 충렬사에 소장 중인 〈Fig. 25〉 포함 홍색 갑옷 대부분과 국립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홍색 갑옷의 겉감도 동일한 형태의 모직물(毛織物)이라고 한다(Park & Lee, 1996). 또한, 독일 라이프치히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갑옷 유물인 〈Fig. 26〉과 이와 유사한 형태의 홍색 갑옷 3 점도 겉감은 홍색 융(絨) 안감은 청색 단(緞)류 이



〈Fig. 22〉 Armor 2(K2368),
Central part of backside,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4.
7. 24.)



〈Fig. 23〉 The Brass Studded Armor
[두정갑(頭釘甲)]
The Joseon Dynasty,
(Gugjoolyeuiseolye, 1474)



〈Fig. 24〉 The small individual
scales on armor 2(K2368),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photograph by researcher,
2014. 7.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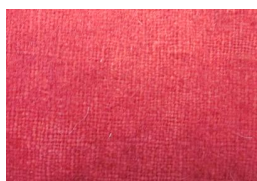
〈Fig. 25〉 Armor of the Commander of
Dadae(다대진첨절제영 갑옷), 18th century,
Chungnyeol Shrine collection of Busan, Korea,
(BM, 2012, p.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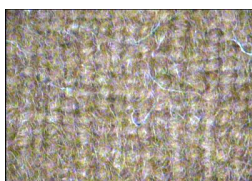
〈Fig. 26〉 Armor of the GRASSI Museum of
Ethnography Leipzig in Germany, 18th
century, (NRICH, 2013, p. 580)

다(NRICH, 2013). 용(絨)은 바닥조직에 파일사(pile)를 첨가하여 짠 후 직물 표면을 고르게 잘라내어 마치 털이 일어난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든 직물이다. 첨가되는 파일사는 견사, 모사 등이 사용되었으며, 근대 이후에는 화학사도 사용되었다. 용직물은 바닥조직이나 섬유 소재에 따라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

문헌에는 용단(絨緞), 장단(漳緞), 장용(漳絨) 등의 용직물에 관한 기록이 있다. 『Mangiyolam』(1808)의 어영청의 기록에는 별초무사(別抄武士)와 기사(騎士)에게 나누어주는 갑주 가운데 '각색 장단으로 만든 피갑주 50부(各色漳緞皮甲胄 五十部)'가 적혀 있어 장단을 갑옷의 제작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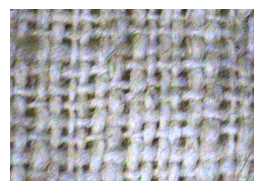
〈Fig. 27〉 Armor 2(K2368) Outshell,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4. 7. 24.)



〈Fig. 28〉 Armor 2(K2368) Outshell, Enlarged detail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4. 7. 24.)



〈Fig. 29〉 Armor 2(K2368) Lining, Enlarged detail,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4. 7. 24.)



〈Fig. 30〉 Armor 2(K2368) Stiffener, Enlarged detail, Th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photograph by researcher, 2014. 7. 24.)



〈Fig. 31〉 Armor of the Commander of Dongrae, 18th century, Chungnyeol Shrine collection of Busan, Korea, (BM, 2012, p. 36)

있다. 하지만 이외에 ‘용(絨)’, ‘용단(絨緞)’, ‘장용(漳絨)’ 등의 직물 명이 들어간 갑옷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모직물과 관련된 의-갑찰(衣-甲札)’의 명명 원칙이 적용되는 갑옷은 『Mangiyolam』(1808)에 기록된 어영청의 ‘다홍성성전도금엽갑주(多紅猩猩氈塗金銅葉甲冑)’, 용호영(龍虎營)의 ‘삼승갑옷(三升甲冑)’, 『Simdojunggi [심도중기(沁都重記)]』(1831)에 기록된 ‘성성전갑옷(猩猩氈甲冑)’, 『Eoyeongcheongdeunglog [어영청등록(御營廳騰錄)]』(1869)에 기록된 ‘성성전갑옷(猩猩氈甲冑)’, ‘삼승철갑(三升鐵甲)’, 등에서 ‘전갑(氈甲)’과 ‘삼승갑(三升甲)’을 확인할 수 있다. 전(氈, felt)은 직조나 편직에 의해 짜인 직물이 아니라 동물 털의 축융성을 이용하여 열과 압력에 의해 만드는 부직포(不織布)이다(Jeon [전], n.d.-a).

삼승(三升, Coarse wool)은 거친 모직물의 일종으로 삼승은 『재물보(才物譜)』 포백(布帛)편에 모직물인 갈(褐) 종류의 모포(毛布)로 기록되어 있다. 같은 원래 고대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었던 거칠게 짠 모직물의 한 종류이며 기원전의 유물도 여러 점 발견되었다. 19세기 초 이규경이 쓴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의하면, 갈포(褐布)는 일명 삼사포(三梭布)라고 하는데 몽고에서 나오는 것을 최상품으로 쳤으며, 목면에다 털을 섞어서 짠 직물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영조 이후 기록에 가리마, 갑옷, 깃발 등에 사용하는 거친 모직물의 용도로 기록되었다(Samseung [삼승], n.d.-b).

충렬사 갑옷, 국립민속박물관 갑옷, 독일 라이프찌히민속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갑옷의 겹감 소재는

용(絨) 종류로 볼 수 있으나, 복식학계에서는 전갑(氈甲)류로 명명하고 있다. 갑옷 2에 대한 명명은 기존의 명명원칙으로 볼 때, 전철갑(氈鐵甲)이 적절할 듯하다. 하지만 실제 소재와 명명 원칙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 앞으로는 갑옷의 소재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목서

안감 왼쪽 가슴에 철갑찰이 달린 위쪽 부근에 '朴左' <Fig. 24>, 안감 오른쪽 아래 쪽에 '西'라는 글자가 먹물로 쓰여 있다. 갑옷 1의 경우와 유사하게 착용자의 이름이나, 갑옷 제작이나 관리와 관련된 명칭으로 보인다.

IV. 결론

본 연구는 독일 상트 오티리엔 선교분도수도원 선교박물관에 소장된 한국의 복식 유물 중 조선 후기 양식 갑옷 2점(유물번호 K2366, K2368)에 대한 기초연구이다. 갑옷 유물 2점에 대한 형태, 재료, 색상 등에 대해 고찰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갑옷의 착용 시대 유추와 복식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갑옷 1(유물번호 K2366)은 『Yungwonpilbi』(1813)의 보군 피갑과 유사한 형태이지만, 옆선에 무가 달리고 뒤트임이 없어 이와 같은 특징으로 볼 때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로 넘어가는 형태로 추정된다. 소재는 곁감과 안감, 심지 모두 면이며, 심지는 곁감이 안감보다 성근편이다. 여기에 가죽 3겹을 겹쳐 만든 피찰이 안감 쪽에 대어져 있고 철두정으로 고정되어 있다. 갑옷 1은 '의-갑찰(衣-甲札)'의 명명 원칙에 따르면 면피갑(綿皮甲)으로 명명할 수 있다. 색상은 곁감은 전체적으로 빛바랜 소색 계열이며, 문양 색상은 남색계열이다. 안감은 청색으로 보이나 추후 청색 계열 안료로 염색된 것으로 보아 본래의 색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의(衣)의 곁감에는 연화만초문양이 찍혀 있으며, 해당 문양의 크기와 형태는 17-18세기 중기의 것으로 보인다. 문양은 인엽 혹은 형지엽으로 추정되어, 문양 기법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특이사항은 목서로 '李玄瑞(이현서)'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것이다. '李玄瑞'는 19세기 중앙군영의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갑옷 1과 여러모로 유사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옷에 쓰인 '金致衡(김치형)'이라는 인물과의 공통점을 통해 갑옷 1은 19세기에 중앙군영의 중급 이상의 장관 혹은 장교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갑옷 1과 같은 연화문양이 있는 면피갑은 17세기 후기 이후부터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착용되었으며, 국말에는 중급 이상의 장관이나 장교가 착용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갑옷 1과 구조적 특징과 문양 등이 유사한 갑옷은 연세대학교 소장 갑옷,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옷, 동경보물유품관 소장 갑옷이 있으며, 이를 통해 당시 규격화된 갑옷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갑옷 2(유물번호 K2366)는 포(袍) 형에 두정이 박혀있으며, 목 부분은 각진 U자형으로 깊은 편이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퍼지는 형태이다. 왼쪽 겨드랑이 부분에 트임이 있으며, 부근에 끈이 있어 무기류를 고정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두정이 몸판과 소매 전반적으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갑옷 2와 유사한 형태의 조선 후기의 전철갑(氈鐵甲) 또는 전갑(氈甲) 유물의 두정이 박혀있는 패턴과 구별된다. 왼쪽 가슴 부분에만 철갑찰(鐵甲札)이 고정되어 있어 의례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의 것으로 추정된다. 재료와 색상은 다음과 같다. 곁감은 홍색의 용(絨) 종류, 안감은 청색계열의 단(緞), 심지는 성근 목면을 2겹 이상 사용한 것으로, 깃, 수구, 앞 솔기, 옆 솔기, 뒤트임, 밑단에 모피를 들렀다. 곁감을 고배율로 확인하면 거친 평직 위에 파일이 심어진 듯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곁감이 용(絨) 종류로 만들어진 갑옷은 충렬사 소장 갑옷,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홍색 갑옷, 독일 라이프찌히민속박물관에 소장된 한국 갑옷 등이 있으며, 이는 복식학계에서 전갑(氈甲)류로 명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소재와 명명 원칙이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어, 갑옷의 소재에 대한 연구과제가 남아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선 시대 갑옷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갑옷의 시대 구분 기준에 도움이 되리라 한다. 또한, 그동안 여러 이유로 방치되었던 해외소재 한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고자 하며, 앞으로 갑옷의 문양, 소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Beckers-Kim Y. J. (2013). *The Korean Gallery inside the Mission Museum of St. Ottilien in Germany*.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1-3.
- Beckers-Kim Y. J., Cho, W. H. & LEE, H. W. (2012). *The basic research of Korea costume collection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 Busan Museum [BM] (2012).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in 1592* [임진왜란], Busan, Republic of Korea: Busan Museum [BM].
- Chang-gyeong-gung-yeong-geon-dogam-euigwe*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 (1834). King Sunjo.
- Cho, H. S. (2008). A study on flower patterns found in the fabrics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5), 87-101.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2006). *Overview of Korean Cultural Heritage: Important Folk Materials 2 Costume & Embroidery*, Daejeon, Republic of Korea: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CHA].
- Eoyeongcheong-deunglog* [어영청등록(御營廳謄錄)] (1869). 124, King Gojong, December.
- Gugjolyeuiseolye* [국조오례의서례(國朝五禮儀序例)] (1474). Heonjong, December 25th.
- Hungug-salye-chwalyo* [훈국사례촬요(訓局事例撮要)] (1652). 2, King hyojong, October 18.
- Ilseongnok* [일성록(日省錄)] (1779). Gu [규(奎)]12811, King Jeongjo, August 13.
-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1997). *Th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military uniforms in Korea 1*. Seoul, Republic of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 Jeon [전]. (n.d.-a). In *Dictionary of Korean Costume*. Retrieved from http://www.dic-costumekorea.org/meta/?act=detail&meta__uid=1284master.do?__method=view&MAS__IDX=101013000696212
- Jigugwan [지구관].(n.d.). In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Retrieved from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
- Jinchan-euigwe* [진찬의궤(進饌儀軌)] (1848). 2, King Heonjong, March 22.
- Kim, B. R. (2009). Review of the military historic aspects of the brass studded armor[頭釘甲]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 army museum*, 16, 50-103.
- Kim, J. J. (1996). *A study on the military uniforms of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Kim, J. J. (1998). *A study on the military uniforms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Minsokwon.
- Lee, K. C. (1979). A study on the armour of Korea(2): Especially on the leather scale armour[皮甲].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142), 13-23.
- Lee, K. C. (1980a). A study on the armour of Korea (3): Especially on the brass studded armor [두정갑(頭釘甲)].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145), 2-9.
- Lee, K. C. (1980b). A study on the armour of Korea(4). *Korean Journal of Art History*, (146, 147), 103-116.
- Lee, M. N. (1983). *A study of the armor*,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ewha.ac.kr/jsp/common/DcLoOrgPer.jsp?sltemId=000000024353>
- Mangiyolam*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 Gunjeong [군정(軍政)] 2, Hunlyeondogam Gungi [훈련도감 군기(訓練都監 軍器)].
- Mangiyolam* [만기요람(萬機要覽)] (1808). Gunjeong [군정(軍政)] 3, Eoyeongcheong Gungi [어영청 군기(御營廳 軍器)].
- Min G. J. (2000). *A study of Korean textile history* (한국 전통 직물사 연구), Seoul, Republic of Korea: Hanrimwon, 226-230.
-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MCI], (1987). *The armor of Korea*. Seoul,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Culture and Information [MCI]
- Moon, K. H. (2004). A study on the armor suits and military uniforms in the late of Chosun dynasty: Focus on the remains of Chungyeolsa in Busan. *Journal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7(1), 137-145.
- National Museum of Korea [NMK], (n.d.). Retrieved from <http://www.museum.go.kr/program/relic/relicDetail.jsp?menuID=001005001003&relicID=4461 &relicDetailID=17841&keyWord=%EA%B0%91%EC%98%B7&searchSelect=NAME&langCodeCon=LC1¤tPage=1&pageSize=12&back=relicSearchList>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2013). *Korean Art Collection-GRASSI Museum für Völkerkunde zu Leipzig in Germany*. Daejeon, Republic of Korea: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NRICH], (n.d.). Retrieved from http://overseas.nrich.go.kr/info/info_02_02.jsp
- Norbert W. (2012). *Im Lande der Morgenstille: Reise-Erinnerungen an Korea*, (I. Y. Park & J. R. Jang, Trans.). Chilgog, Republic of Korea: Bundo. (Original work published 1915)
- Norbert, W. (1999). *In den diamantbergen Koreas*, (Y.

- J. Kim, Trans.). Seoul, Republic of Korea: Prunsoop. (Original work published 1926)
- Park, G. Y. & Lee, E. J. (2009). A preliminary investigation for the restoration of the shape of Seong-ryong Ryu's arm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9(5), 1-18.
- Park, G. Y. & Song, M. K. (2013). An analysis of the cotton fabric armour (綿甲) in the late Joseon Korea: with emphasis on the remaining artifact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4), 158-167.
- Park, G. Y. (2003). *A study on armor in Joseo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library.snu.ac.kr/?cid=1083935&moi=72872&file=1598322>
- Park, G. Y. (2005). The manufacture of armor in Joseo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 army museum*, 12, 171-200.
- Park, G. Y. (2008). Present situations of the remaining Korean armors and helmets of Joseon dynasty and their periodization for a better apprais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58(5), 166-177.
- Park, S. J. & Lee, C. K. (1996). A study on woolen fabrics in Chose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28), 218-219.
- Samseung [삼승]. (n.d.-b). In *Dictionary of Korean Costume*. Retrieved from http://dic-costumekorea.org/meta/?act=detail&meta_uid=1251
- Seogwol-yeong-geon-dogam-euigwe* [서궐영건도감의궤 (西闕營建都監儀軌)] (1832). 1, King Sunjo.
- Seoul Museum of History (2014). *Ode to the east small gate* [동소문별곡], Seoul, Republic of Korea: Seoul Museum of History
- Simdojunggi* [심도중기(沁都重記)] (1831). King Sunjo, Gungi [군기(軍器)].
-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Ed.) (n.d.). Retrieved from http://people.aks.ac.kr/front/tabCon/exm/exmView.aks?exmId=EXM_MU_6J0c_1829_022149&curSetPos=0&curSPos=0&isEQ=true&kristalSearchArea=P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41). 2397, King Heonjong, March 4.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42). 2400, King Heonjong, March 4.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46). 2455, King Heonjong, September 15.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53). 2540, King Cheoljong, March 26.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54). 2553, King Cheoljong, April 17.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70). 2751, King Gojong, May 2.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73). 2787, King Gojong, April 18.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77). 2835, King Gojong, February 6.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79). 2859, King Gojong, February 12th.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79). 2864, King Gojong, June 28.
-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1880). 2874, King Gojong, April 13.
-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2009). *The report about the Korean Collection management & support of the Mission Museum of Saint Ottilien in Germany* (독일 쌍뜨 오티리언 수도원 선교박물관 소장품 정리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Seoul, Republic of Korea: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Ed.) (n.d.). Retrieved from <http://www.nl.go.kr/nl/search/search.jsp?all=on&topF1=title&kwD=%ED%9B%88%EB%A0%A8%EB%8F%84%EA%B0%90%EB%B3%84%EB%AC%B4%EA%B8%B0%EC%B4%88%EA%B5%B0%EB%8C%80%EC%8A%B5%EB%8F%84#none>
- Yoo, S. H. (2006). *A study on making technique and restoration of general iwon's arm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gi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 Yum, J. H. & Cho, W. H. (2013). A study on military costumes of Hunryeondogam(訓練都監) in the Mid and the Late Jose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3(8), 171-187.
- Yum, J. H. (2014). *A study on the military costumes of five military camps in the late Joseon dynasty* (doctoral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Retrieved from <http://dcollection.skku.edu/jsp/common/DcLoOrgPer.jsp?slItemId=000000050694>
- Yungwonpilbi* [용원필비(戎垣必備)]. (1813). Armor [갑주(甲冑)].